

독일 가는 세월호 유가족 노란 목도리 뜨는 이유는

# 한땀한땀 '눈물의 세월' 세계인과 나눈다

아름 달래려 뜨게질 시작  
'교회의 날' 행사 베틀린서  
4·16기억저장소 부스 운영  
봉사자·독일시민에 선물



접으면 세월호 리본

▶ 지난 4일 목포신항 앞 도로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란 목도리를 한땀 한땀 뜨고 있다. 위는 목도리가 리본 형태로 접혀있는 모습.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 잃은 슬픔을 견뎌내기 위해 3년 전 시작했던 뜨게질이 전 세계인과 아픔을 나누고 치유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로 떠올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독일의 한인목사 9명의 초청을 받아 오는 5월 독일서 열리는 '2017 독일 교회의 날(Kirchen-tag)'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9명의 한인 목사들은 '교회의 날' 설치될 자신들의 교회 부스 면적을 조금씩 양보해 '4·16기억저장소 부스'를 설치할 만한 공간을 마련했다. 안산에 설치된 4·16기억저장소 소장인 이기성씨와 단원고 희생자 조은정양 어머니 박정화씨가 대표로 오는 5월22일 독일로 갈 예정이다.

과정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응원을 받을 계획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억저장소 부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이들과 부스 운영을 도와줄 봉사자, 세월호에 관심을 가져주는 독일 시민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했다. 유가족들은 고심 끝에 자신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했던 뜨게질을 생각해 냈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 목에 두르면 노란리본 모양이 되는 목도리를 선물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시

간 날 때 마다 뜨게질을 하며 현재까지 100여개의 목도리를 만들었다. 3년 전 아픔을 잊기 위해 시작했던 뜨게질이 독일 시민들과 아픔과 치유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단원고 희생자 진유희 학생의 어머니 김순진씨는 "3년 전 주위의 추천을 받아 시작한 뜨게질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뜨게질을 해야 목도리를 하나 만들 수 있다"며 "뜨게질하는 동안은 아이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어

좋고 이렇게 만든 목도리를 받은 독일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로 독일을 방문하는 박정화씨는 "독일에서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행동' 등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베를린에서 세월호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 목에 노란 목도리를 걸어주고 포옹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사진 목포=김한영기자 young@

## 세월호 유가족, 15일 대인야시장 '별장'서 시민 만남 행사

은암미술관 '진실의 세월'전엔 '우재아빠' 고영환씨 출품

대인예술야시장 '별장'과 은암미술관 전시에도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한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별장'은 오는 15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만남'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미정), 김희용 '넘치는 교회' 목사, 시민 활동가 등 3명이 참여해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매 행사마다 '탈곳', '씻김무' 등 예술공연을 열어 희생자를 추모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은암미술관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기획한 '진실의 세월'전(9~22일)에서는 '우재아빠' 고영환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고씨는 '영원히 기억할게 사랑해' 등 나무 공예작품 3점을 출품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세월호 객실부분 육지서 보이게 180도 튼다

수습본부, 유가족 요청 수용

세월호가 객실부분을 육지에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180도로 틀어 거치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6일 오전 목포 신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일 선체 조사위원회가 객실부분을 부두 쪽으로 돌려 거치해 달라고 요구해 해수부도 선조주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습본부는 세월호의 객실 부분

을 바다 쪽으로, 배의 바닥 면을 부두 쪽으로 향하도록 거치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에는 부두에서 객실 부분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계획을 바꿔 세월호의 방향을 180도 틀어 거치하기로 했다. 객실부가 바다 쪽이 아닌 부두 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요청을 선조위가 수용했고,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여면서 확정됐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 의약 리베이트 병원장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광주 모 병원 원장 A(4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구속된 광주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납품 전속 계약 명목으로 15억원의 선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다. A씨는 또 병원 임대 장비를 이용해 9억원의 부적절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범죄 용의자 신장측정표 부착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편의점 출입구에 범죄 용의자 특정용 신장측정표를 광주 최초로 부착했다. 경찰은 다중이용업소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연말까지 업소 250곳에 신장측정표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 전남대 총학회장 재선거도 무산

투표율 42%로 과반 밀돌아  
중앙운영위가 총학 대신할 듯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두 번 연속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했다. 6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17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총학생회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이틀간 연장투표를 했으나 최종투표율이 42%로 잠정집계되면서 재선거임에도 50%를 넘지 못한 것이다. 전남대는 지난해 11월 2017 총학생회 선거를 치렀다. 당시에도 투표율이 낮아 투표기간을 이틀간 연장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41.43%에 그쳤다. 전남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총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선거 세칙에 따라 지난 4일 재투표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철진(전자컴퓨터공학부 4년) 위원장은 "선거에서 두 번 연속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또다시 재선거를 해야 할지 여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겠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총학생회 역할을 대신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남대 학생사회의 위기',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범죄 용의자 신장측정표 부착

## 폐암 환자에 좋다는 말에...일주일간 마트서 참기름 훔치다 들통

○...참기름이 폐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70대가 마트에서 수차례 참기름을 훔쳤다가 들통나 경찰서행.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74)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18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마트에서 참기름 1병을 점퍼 속에 넣어 훔치는 등 일주일간 매일 참

기름 1병씩 총 7병 3만여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내밀자 '참기름이 폐암 수술환자에게 좋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훔쳤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은 "이씨가 폐암환자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 /전문기자 eij6621@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평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평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평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의 근린시설

대지 1073평  
건물 336평  
최저가 540,000,000  
감평가 1,506,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건물 340평  
최저가 788,000,000  
감평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평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대지 1073평  
건물 336평  
매매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